

나는 마취전문 간호사입니다



마취전문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희 간호사

30년 전 이맘 때, 나는 붉은 장미가 만발한 올림픽공원을 걸어가며 울고 있었다. 3개월차 신규 간호사인 내게 닥친 상황이 너무 버거웠기에 측은하게 쳐다보는 주위 사람의 눈을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1992년 2월, 낯선 서울 방이동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서울아산병원 수술실 신규 간호사로 입사했다. 대학 시절 실습하던 수술실과 달리 서울아산병원 수술실은 규모가 컸고, 장기 이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수술실은 항상 긴박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는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생겼고, 그 실수로 인해 더 긴장하는 상태가 반복됐다. 그렇게 시간

이 지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매우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수술실 간호사로 일한지 3개월 만에 마취회복실로 부서이동이 결정됐다. 그 당시엔 내가 일을 잘 못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당시 나를 플로팅 간호사(인력 수요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서 일반 간호사로 전환하려 했는데, 마침 마취회복실만 일반간호사 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 사정을 몰랐던 나는 너무 상심해서 서러운 마음에 집까지 걸어가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공부하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이왕 다른 부서로 옮겼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보자 결심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밤새 고민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이었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 주눅이 들고 긴장해서 실수가 반복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마취회복실 3개월 선배이자 입사 동료인 간호사와 선배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미리 정보를 얻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 회식자리에서도 일 애기만 한다고 동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할 정도였다.

수술마다 다른 마취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해당 마취과 책과 마취 기록지를 읽고 또 읽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간호부 교육과정인 중환자 기본과정, 중환자 고급과정, 응급간호과정 등 업무관련 교육은 기회만 되면 다 들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교육은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임상에 적용되는 이론들을 전공 교수들과 선배 간호사들을 통해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었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들도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심지어 관련 책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다. 이렇게 하며 자신감이 생기니 업무도 저절로 잘되고 실수도 하지 않게 됐다.

병원에서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지원해 주었을 때 얼른 지원해서 병원 내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이 공부하는 간호사들도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 내친 김에 대학원에도 진학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지만 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임신 중에도 파낸 마취전문 간호사 자격증

마취회복실 간호사로 근무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마취통증의

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수술 후 통증을 관리하는 APS(Acute Pain Service Team)팀을 구성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업무 매뉴얼, 구성, 역할 등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였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한 논문을 읽고 통증이론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업무를 짜 나갔다. 병동에서의 통증 관리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매뉴얼도 만들었다.

드디어 병원 내에 공식적으로 전문 간호사가 조직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수술 후 통증관리 전문 간호사가 됐다. 관련 자격증이 필요해서 가천의대 마취전문 간호과정 대학원을 다시 진학했다.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때라 대학원 교수님들이 ‘뱃속의 아이도 같이 공부를 하니 똑똑한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며 참 많이 격려해주셨다.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수업에 들어가자 교수님이 깜짝 놀라 ‘역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대단하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점을 잘 주겠다고 했다. 반드시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환자, 의사, 간호사를 잇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시작한 초기에는 병동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방법, 병동간호사 업무와 시스템을 몰라서 힘들었다. 하지만 간호하는 매 순간 ‘내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이게 최선일까’를 늘 고민하며 일하다보니 통증간호는 많은 지식보다는 오히려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환자와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환자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병동업무가 파악되니 각기 다른 병동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마취통증의학과와 병동 간호사의 연결고리가 되어 조금이라도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노력했다. 얼마 전 타과의 3년차 레지던트가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상담해와서 같이 고민하고 제안을 했다. 환자에 관심이 많은 전공 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뻐다. 이것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인 것 같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던 2020년 말 갑작스럽게 마취회복 신규 간호사들을 위한 지침서를 내보자는 출판사의 요청을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많이 망설였지만, 마취회복 간호사들을 위한 책이 없어서 어려웠던 때가 생각나 용기를 냈다. 무사히 『프셉마음-마취회복실편』을 출판한 후 여러 마취과 교수님들과 간호사들이 칭

찬을 해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을 계기로 마취회복 간호사들을 위한 임상 관련 책들이 더 많이 출판되길 희망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고에 도전하길

요즘 신규 간호사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배들보다 훨씬 멋진 간호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몇 가지 당부하자면 신규 간호사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높은 목표를 설정했으면 한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간호사로서 환자를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근면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전문 간호사는 정말 매력 있는 일이다. 처음에는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뿐인가 싶어 갈등도 있었지만 그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호 업무로 발전시킬 수 있다. 신규 간호사 모두 본인의 꿈을 향해 항상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길 바란다. 🍀

글 김명희 서울아산병원 마취전문 간호사



김명희 마취전문 간호사가 집필한 '프셉마음-마취회복실편'.